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동교회로 모입니다.

교회학교 부장회의가 오후 12시 30분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4주간 동안 이범석 목사가 마태복음을 강의합니다. 저녁 7시 30분 세미나실에서 시작합니다.

‘서울역 다움교회’와 함께 드리는 음악예배가 18일(목) 저녁 7시 청파교회에서 열립니다.

허성호 씨와 진은혜 씨가 결혼합니다. 결혼예식은 20일(토) 저녁 7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에서 있습니다.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한 중보의 기도시간과 나로부터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침묵의 기도시간을 마련하십시오.

행 9:1~6, 7~20 / 시 30
계 5:11~14 / 요 21:1~19

신11:13-21

식 당 봉 사 : 이형숙 광혜자 권미숙 김수진 이미혜 이명희 최숙화 문홍일
다음 주 식당봉사: 안홍숙 임영선 이증자 이수정 박경선 박정숙 구성실 최재욱
오늘설거지봉사: 홍순구 박해남 박재란 우순덕 김대근
다음 주 설거지: 홍순구 최미자 유상진 현우영 고정환 하진채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해주시는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절기를 지내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살면서 마주치는 무의미한 고통으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행여 쓰러지더라도 재빨리 다시 일어나 가야할 곳 바라보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해주십시오.

주님, 계속 긴장국면에 있는 남과 북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민족, 한 핏줄이건만 너무 오랜 시간 서로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남과 북이 야곱과 에서처럼 서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며 포용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해주십시오.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구명자 김명순 이교영 김영순 김용길 최영혜 김종락 박영신 김종수
이순정 김철수 유영남 문복순 박경원 박시내 박옥순 박용진 김용원
방극숙 방문성 박혜경 배부례 백묘현 송동준 김진경 왕수명 원용일
최현선 윤주원 최윤선 이광섭 이동천 이예서 이우원 옥귀희 이재훈
이정은 이지훈 이한림 김명희 장미란 정수복 정두리 정연희 조순덕
최다미 최철수 광권희 한상경 허호범 박성실 홍춘숙

감사헌금:

김기석 김대규 박경애 신진식 변혜정 윤슬이 이유일 김미희 정현모
조순덕 최영준 홍성식 이유리 중구용산지방찬양대 무명

생일감사헌금:

윤영미

녹색꿈헌금:

김문주 김재영 김정진 문복순 임창국 장원호 박성희 최다미 추현영
무명

	장혜숙 노순옥 김재홍 장영숙 정경례 박홍재 권미숙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정영선 박혜경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장영숙	백혜숙 박성희 최경미 신영신 진정숙 광권희 박미영 김금순 윤수진 오현정 서정순 조항미 오자영 이근식 광상준 김세진	장혜숙 노순옥 차혜심 곽혜자 박옥순 조영순 박효선 이순정 이형숙 임영선 서정순 임창선	정두리 이준림 이소순 김명순 이봉배 박홍재 박미영 박오복 김필순 김정현 주우경 김희혜
--	--	--	--	--

마음으로 읽는 글

얼굴반찬

옛날 밥상머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과
 형과 동생과 누나의 얼굴이 맛있게 놓여있었습니다
 가끔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먼 친척들이 와서
 밥상머리에 간식처럼 앉아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외지에 나가 사는
 고모와 삼촌이 외식처럼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얼굴들이 풀잎 반찬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새벽 밥상머리에는
 고기반찬이 가득한 늦은 저녁 밥상머리에는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습니다
 모두 밥을 사료처럼 퍼 넣고
 직장으로 학교로 동창회로 나간 것입니다

밥상머리에 얼굴반찬이 없으니
 인생에 재미라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 공광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형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에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항상 예수의 길을 선택하며 사십시오.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면 할수록 주님을 깊이 신뢰하며 사십시오.

아멘. 나 자신에게 실망하여 자주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지워가고 그 자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채워가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교회	신앙의 요체 / 김기석 목사 기도 : 이형숙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신진식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한상의 장로	최희영 선생 윤성종 권사

4월	영접위원	윤석철 하현철 문홍일 안정숙 박홍재 박경원
	헌금위원	조병무 백혜숙

나는 누구일까

일전에 용산 쪽에 사는 이가 나를 초대했는데, 그쪽 지리에 어두운 나를 위해 남영역까지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와주겠다고 했다. 시간이 안 맞는 경우 몇 번이라도 역 주변을 돌겠노라고 하면서 차 번호랑 핸드폰 번호까지 알려주었다. 나는 남영역이라는 데는 처음 가보는 데라 어디서 어떻게 갈아타야 되나 전철 노선표를 펴놓고 꼼꼼하게 예습을 하고 나서 떠났다. 요즘처럼 주차 사정이 나쁜 때는 그저 차 얻어 타는 쪽에서 먼지가 있는 게 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약속 시간보다 십오 분 가량 먼저 남영역에 도착했다. 나는 만 원짜리 회수권을 쓰는데 그게 그때 마침 다 되어 표는 되돌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큰일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었다.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마중 나오기로 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 군데 서 있는 것도 거치적매 정도로 역 주변의 인도는 좁고도 복잡했다. 이십 분, 삼십 분이 지나도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약속이 뭔가 잘못된 모양이었다. 아마 이럴 때 써먹으라고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지 싶어 번호를 적어놓은 쪽지를 찾았다. 그 쪽지를 지갑 갈피에 찔러 넣은 생각은 나는데 핸드백 속에 지갑이 없었다. 나는 지갑을 빼놓고 핸드백만 들고 나오기를 잘하지만 소매치기를 당했을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어서 우선 집에 전화를 걸어보아야 할 것 같았다. 전화카드도 핸드백 속에 없길래 잔돈을 찾았다. 워낙 큰 백이고 안주머니와 겹주머니까지 있는지라 잔돈푼이 숨어 있을 데가 많았다. 그러나 아무리 손을 넣고 휘저어봐도 십원짜리 한 푼 만져지지 않았다. 시간은 약속 시간에서 거의 한 시간 가까이 경과하고 있었다.

나는 차를 기다리는 걸 단념하고 남영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계단에 자

리 잡고 앉아 본격적으로 핸드백 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 그때까지도 가까운 은행만 찾으면 현금카드로 돈을 찾을 수 있으려니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카드도 지갑과 함께라는 생각이 미치자 더럭 겁이 났다. 나들이 낮은 곳에 세워놓고 마중을 나오지 않은 이에 대해서도 분노보다도 걱정이 앞섰다. 지갑도 궁금하고 궁금한 것 천지인데 알아볼 방법이 없었고, 첫째 돈 없이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무런 묘안도 떠오르지 않았다. 만 65세만 넘으면 노인증이나 주민등록증만 보이면 공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는 돈을 버는 노인이니까 돈 내고 표 사서 다니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이야말로 그따위 잘난 척을 할 형편이 아니었다. 공짜 표를 청하러 창구로 가려다 말고 생각하니 노인증은 아예 발급도 안 받았고 주민등록증도 잃어버린 지갑 안에 있으니 이를 어쩔 것인가. ...

남영역 앞 인도에는 전화 부스가 열 개 가까이 늘어서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현금으로 걸 수 있는 데를 지키고 서서 누군가가 돈을 남겨놓은 채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고 나오는 데가 없나 잔뜩 눈독을 들이고 기다렸다. ... 돈 남은 공중전화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자 남은 희망은 단 하나, 누가 나를 알아보는 거였다. 나는 다시 역사 안으로 들어가 승객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계단 밑이 턱을 쳐들고 서서 누가 나를 알아보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누군가가 박완서 씨 아니세요? 하고 말을 걸어온다면 그렇다고 하고 나서 오백 원만 달라고 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나한테 아는 척을 안 했다. ... 거기가 어딘지 종잡을 수 없는 아득한 마음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더 막막한 무서움증으로 변했다.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인가. 카드나 주민증 없는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 그때 내가 남영역에서 잃은 건 지갑도, 길도 아니라, 명함만한 주민증이나 카드에 불과한 나 자신이었다.